

2024 \* No.46  
May+June

향긋한 인터넷 카페 동서식품 홈페이지  
www.dongsuh.co.kr

독자정보 변경과 구독 증지는 웹진과 독자 엽서  
전화를 통해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독자 엽서를 참고해 주세요.

사람과사람, 함께하는

# 삶의 향기

싱그러운  
꽃들의 잔치  
여름이 가까이 있어요



©클림트\_〈해바라기가 있는 농장 정원〉



Cover Story



해바라기가 있는 농장 정원\_클림트  
[Gustav Klimt, 1862~1918]  
1907년작 | 110cm x 110cm | 유채, 캔버스

질은 초록의 잎 사이로 다양한 꽃이 만발한 농장의 정원에서는  
싱그러운 여름날의 활력이 느껴집니다.  
꽃 중에서도 유독 희망과 기쁨을 상징하는 해바라기가 눈에 잘 들어옵니다.  
클림트는 직접 만든 정사각형의 골판지 프레임을 사용해  
오스트리아의 '아테르제' 주변 풍경을 관찰하고 담아냈습니다.  
그는 늘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연구했고, 작품에 입체적인 요소를 가미하기 시작합니다.  
꽃과 잎은 평면처럼 보이면서도 깊이가 느껴지는 착각을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클림트가 그린 아름다운 정원의 꽃을 보면서 생활의 활기를 찾아 보세요.



# CONTENTS

사람과사람, 함께하는

삶의 향기

Vol.46 2024.05+06

04	향기로운 시간	한아름 꽃다발을 안겨주세요
06	차 한 잔의 향기	글씨당 김소영 대표
10	문학의 향기	나는야 행복한 냄새
14	길 위의 시간	반전 매력을 지닌 아프리카 최대의 관광도시 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공화국
20	올 댓 커피	'카페 소스페조'의 나라, 이탈리아
24	한국의 재발견	단오의 다른 이름 '수릿날'과 수리떡
28	클래식 산책	N잡러 작곡가와 화가
32	도시를 걷다	우리가 여행할 이유, 철원
36	친절한 고전	키로파에디아
38	우리집 식물원	향긋하고 맛있는 식물, 허브 키우기
40	일상의 향기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감사
44	행복 레시피	가지에 표고버섯과 새우를 넣어 만든 가지 멘보샤 & 카누 디카페인 커피를 넣은 아이스 유자차
46	동서 뉴스	동서식품의 다양한 소식
48	삶의 향기 뉴스	독자이벤트 후기와 엽서 분석
50	게시판	독자 의견 및 쿼즈
51	브랜드 스토리	동서식품 제품 이야기

통 권 제46호  
발행일 2024년 5월 1일 발행 (격월간·비매품)  
등록일 2016년 10월 7일  
등록번호 마00005  
발행인 김광수  
발행처 동서식품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새벌로55  
홈페이지 [www.dongsuh.co.kr](http://www.dongsuh.co.kr)  
편집·디자인 케이아트만(주) (02)511-7053  
인쇄 신영 (02)2275-1600

구독 관련 문의\_편집실: 02-511-7053



## 한아름 꽃다발을 안겨주세요

행복은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가까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누군가에게겐 살아갈 힘을 주기도 하죠.  
우리는 늘 사소한 것들로 타인에게 상처받고 아파하지만,  
또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상처를 치유 받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는 사람에게 나는 얼마만큼의 진심을 보였을까요?  
나를 비추는 햇살 같은 고마운 존재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요.

오늘에는 메시지와 전화가 아닌,  
눈을 마주 보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감사의 인사를 건네 보세요.  
당신 손에 들린 꽃다발 한아름이면 충분합니다.





삶이 던진 백지 앞에  
나는 붓이다

글씨당  
김소영 대표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백지와 같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한 장의 백지와 붓을 쥐여 준다. 무엇을 써 내려가야 할까?  
종이를 채우는 것은 나의 몫이다. 한 번뿐인 삶이기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더 과감하게 붓을 들고 세상에 나를 내 던져야 한다.

글. 김효정 사진. 김재이

## 방향의 시기에 만난 나태주 시인의 글

글씨당 김소영 대표는 글씨를 쓰는 사람이다. 캘리그래피 작가이자 디자이너로 생각하면 쉬운데, 최근에는 퍼포밍 아티스트로 더 알려졌다. 그녀는 본인의 팔뚝만 한 붓을 들고 캘리그래피 퍼포먼스를 펼친다. 화려한 색감의 한복은 이제 시그니처가 되었다. 그녀의 붓은 세심하지만, 강하고, 또 유연하다. 간결한 문구로 펼쳐낸 긍정의 메시지가 보는 사람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는다. 그대로 도화지 속으로 빨려들어갈 것만 같은 느낌이다. 김소영 대표에게는 그런 힘이 있다.

“처음부터 캘리그래피 작가를 꿈꾼 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LG디스플레이 생산직으로 근무했어요. 7년간 근무하면서 일에 대한 회의를 느꼈어요. 친구들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주어진 청춘의 시간을 즐기는데, 저는 늘 근무복을 입고 똑같은 일만 한다는 게 답답했어요. 월급이 많으면 많은 대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다 써버렸던 것 같아요. 삶의 의미나 목적을 찾을 수 없었어요.”

탈출구가 필요했다. 그녀는 퇴근 후 사내 대학도 다니고, 되는대로 각종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래 봤자 스펙 쌓기에 연연한 직장인일 뿐이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다. 그러다 백화점에 걸린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 문구를 보게 된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가슴을 툭 치고 지나가는 글귀였어요. 잊히지 않더라고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20대는 누구에게나 방향의 시기지만, 누구도 내 길을 알려주지 않죠. 그런데 그 글귀 하나가 제 이정표가 되





어 주었어요. 나중에 나태주 시인의 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 강원도 강릉에서 홀로 살아남기

김소영 대표에게 꿈이 생겼다. 글씨 쓰는 사람이 되는 것. 무작정 글씨를 쓰고 싶었다. 나태주 시인의 멋진 문구처럼 그렇게 소중한 나 자신이 되고 싶었다. 회사를 그만둘 이유는 충분했다. 그녀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회사에 사직서를 던지고 강릉으로 훌쩍 떠났다.

“바다가 있는 도시에 가고 싶었어요. 무작정 강릉에서 한 달만 살기로 마음먹었죠. 일단은 공장에서 입었던 옷부터 벗어 던지고, 그동안 꿈꿔왔던 꽃무늬 원피스를 여러 벌 샀어요. 매일 다른 원피스에 챙이 큰 모자를 눌러쓰고 혼자 강릉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그때 사람들은 제가 정신 나간 여자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몇 년간 배웠던 캘리그래피 실력을 무기 삼아 강릉에서 열리는 행사란 행사는 모두 쫓아다녔다. 테이블을 펼쳐놓고 미리 준비한 붓과 종이에 나태주 시인의 시 문구를 써서 아이들에게 무료로 나눠주었다.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 그저 ‘예쁜 옷을 입고 좋은 의미의 문구를 멋지게 써주는 사람’, 그녀가 되고 싶은 전부였다. 이상하게도 원하는 일을 하는데, 사람들은 고마워하고 행복해했다. 처음으로 ‘일’에 대한 프라이드가 생겼다. 그러다 축제 개최사에서 섭외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부스를 마련해 났으니, 행사에 참여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좋은 일은 운을 타고 이어졌다. 초등학교, 중학

교 방과 후 수업까지 요청이 들어왔다. 첫 수업이 생긴 것이다. 일은 속도를 내며 가지를 치기 시작했다. 영업장 간판 글씨 의뢰가 들어왔다. 그렇게 지금은 다양한 나라의 대사관 현판까지 쓸 정도로 김소영 대표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강릉에서 정말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아요. 여기는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 준 곳이에요. 저는 대부분의 작품을 강릉에 있는 소재나 요소를 활용해서 만들었어요. 저에게는 근본이나 다름없죠. 어떻게 보면 강릉이 절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두 번째 호를 여강이라고 지었어요. 같을 여(如)에 강(江), 강릉과 같다는 의미로 강릉은 제 뿌리나 다름없어요.”

### 모든 혼을 담아 나를 표현한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많은 이들의 기대와 사랑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은 인생이겠는가. 김소영 대표는 자신이 곧 글씨이길 바란다. 하얀 백지 위에 붓이 되어 자유롭게 움직이며 모든 것을 쏟아 내길 원한다. 그녀는 최근 퍼포밍 아티스트로 주목받고 있다.

“강릉에서 매년 단오제를 열거든요. 좋은 기회로 제가 단오제 홍보 포스터 글씨를 쓰게 되었어요. 그때 원을 그려 넣었는데, 외국처럼 퍼포먼스를 해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단오제 개최위원회에 무턱대고 제안을 했어요. 절대 안 된다고 자르시더라고요. 돈도 필요 없고, 그냥 쉬는 시간에 잠깐 무대에 올라가서 할 수는 없겠냐고 사정도 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죠. 단오제 당일 날 한복을 입고 붓을 포함한 모든 장비를 다 챙겨 갔어요. 잠깐 쉬는 시간에 담당자에게 한번만 무대에 오르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담당자도 지쳤는지 수락해 줬어요. 그때는 처음이라 바닥에 놓고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저는 그때부터 강릉 단오제에서 캘리그래피 퍼포먼스를 한 사람이 되었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버틸 힘만 있다면, 언젠가는 원하는 목표에 다가갈 기회가 생기거든요.”

기회는 기다린다고 해서 주어지지 않는다. 그녀는 스스로 기회를 만들었고, 목표한 것을 하나씩 이뤄갔다. 김소영 대표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라는 말을 신념처럼 좋아한다. 오르고 또 오르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 단오제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제주도에 행사 제안을 했다. 그렇게 그녀의 글씨와 그림이 세상

에 알려지게 되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쉽지만, 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람들은 해보기도 전에 안되는 것부터 생각하거든요. 현실적인 문

제에 놓여서 하고 싶은 일을 못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용기 내서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

더라도 버틸 힘만 있다면, 언젠가는 원하는 목표에 다가갈 기회가 생기거든요. 해보고 아니면 그때 포기해도 늦지 않아요.”

김소영 대표는 자신의 작품이 전시장에만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제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 앞으로도 그녀의 글씨가 모두에게 이로운 글씨, 좋은 글씨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The 65th Story

<문학의 향기>는 매호 삶의향기 동서문학상 수상자들이 새롭게 선보이는 소설, 에세이 등으로 채워집니다. 살아 있는 감수성과 힘 있는 필력을 가진 작가들이 펼치는 문학의 정수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문학

# 나는야 행복한 냄새

글. 고훈실 일러스트. 조주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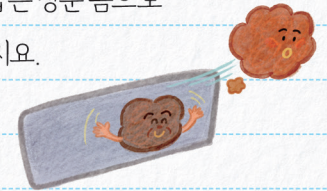


“뭐야이 쿨쿨 꼬릿꼬릿한건” / “음 지독해.”

냄새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청국장 냄새인 꺾이를 썰러보았어요. 꺾이는 지하철 의자 속으로 후다닥 숨었어요. 나쁜 냄새 중에서도 특히 꺾이는 더 구박을 받았어요. 골이 지끈지끈해지는 냄새라며 냄새끼리도 싫어했거든요. 지하철 안에는 정말 많은 냄새들이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냄새는 활개 치며 돌아다니지만, 꺾이처럼 싫어하는 냄새는 구석이나 바닥에 웅크린 채 눈치를 보지요. 신발 고린내, 떡진 머리 냄새, 찌개 냄새, 땀 냄새, 입냄새들은 모두 몸이 넘치처럼 납작하고 눈이 한쪽으로 쏠려있어요.

\*

“쿨쿨. 어디선가 좋은 냄새가나.” 의자에 앉은 아이가 꺾이 냄새를 맡았어요. ‘내, 내가 좋은 냄새라고?’ 꺾이는 가슴이 마구 뛰었어요. 좋은 냄새라는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분홍 원피스를 입고 흰 가방을 맨 여자아이는 초등학생으로 보였어요. ‘나도 좋은 냄새가 될 테야.’ 꺾이는 결심했지요. 지하철 안에서 구박덩어리로 사느니 그 아이를 따라가 좋은 냄새가 되겠다고요. 꺾이는 냄새에게 자기 생각을 털어냈어요. “청국장 냄새는 죽었다 깨어나도 좋은 냄새가 되기 어렵지.” / “그럼. 그냥 여기서 적당한 치 보며 사는 게 제일이야.” 나쁜 냄새들이 손사래를 치며 말렸어요. 그 사이 여자아이가 내리려 일어났어요. 꺾이는 아이를 따라 후다닥 나섰지만 지하철 문이 코앞에서 닫히고 말았어요. 아이는 차창 밖으로 멀어져갔지요. 꺾이는 동동거리며 바라볼 수 밖에 없었어요. 깊은 밤. 신발 고린내 아저씨가 시무룩한 꺾이한테 다가왔어요. “네가 원하면 가는 거야. 다른 걱정은 말고.” 늘 말이 없던 고린내 아저씨가 꺾이 어깨를 다독였어요. “지금 바로 가.” 고린내 아저씨가 틈새를 찾아 주었어요. 꺾이는 좁은 창문 틈으로 겨우 빠져나왔어요. 차가운 새벽바람이 꺾이를 스치고 지나갔지요. 늘 따뜻하던 지하철안이 떠올랐지만, 꺾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보였어요. 꺾이는 꽃무늬 스카프를 두른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어요. 그 아이의 엄마 포레로 보였거든요. “새벽부터 된 냄새야.” 아주머니는 인상을 찌푸리며 손을 휘저었어요. 꺾이는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지요. 차들이 꺾이 위로 뽕뽕 지나갔어요. 꺾이는 절뚝거리며 겨우 길 밖으로 나왔어요. 바깥세상은 꺾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서웠어요. 꺾이는 축 처진 모습으로 길가에 앉아있었죠. 그때 누군가 꺾이 앞으로 왔어요. 온몸이 누런 치즈 냄새였지요. “너, 갈 데 없지. 나 따라갈래?”



치즈 냄새는 따라오라는 시늉을 했어요. 꾀이는 잠시 망설였지요. 하지만 그 아이를 찾으려면 어디든 가야 할 것 같았어요. 치즈 냄새를 따라간 곳은 음식쓰레기 통이었죠. 파란 통 안에 음식 쓰레기가 그득하고 그 위로 파리 떼가 어지러이 날고 있었어요.

‘여기엔 그 아이가 올 것 같지 않아.’ 꾀이는 켄렁거리는 냄새들 사이를 비집고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잘난 척 하기는. 너나 우리나라 지독한 썩은 내인 건 마찬가지잖아.” 생선 썩은 냄새가 시비를 걸었어요. 검푸르딩딩한 얼굴에 날카로운 이빨이 금방이라도 꾀이를 물어뜯을 것 같았어요.

“난 찾는 아이가 있어. 여긴 그곳이 아니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생선 썩은 냄새가 꾀이를 향해 돌진했어요. 그때 흰나비 한 마리가 팔랑거리며 날아왔어요. 꾀이는 나비에게 급히 사정했어요.

“나 좀 태워줘.” / “그럼 넌 뭐해 줄 건데?” / “뭐든 도울게.”

흰나비는 꾀이를 태우고 파란 하늘로 올라갔어요. 흰나비는 음식쓰레기와 한창 떨어진 옥상에 꾀이를 내려놓았지요. 꾀이는 흰나비에게 보답하고 싶었어요.

“네가 우리 곁에 있어 주면 돼.” 나비들은 꽃향기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콧코한 냄새도 좋아해서 가끔 외식하듯 꾀이 같은 냄새를 찾기도 하지요.

“좋아. 하루 동안 여기 있을게.” 꾀이는 흰나비와 그 친구들이 사는 옥상 배추밭에서 맘껏 냄새를 풍겼어요. 밤이 되었어요. 고슴도치처럼 뾰족한 가시를 단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잠자던 나비들이 모두 일어나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날파람이야. 모두 배춧잎 꼭 붙잡아.” 대장 나비가 소리쳤어요.

배춧잎이 찢겨 나가고 옥상에 있는 물건들도 이리저리 마구 날렸어요. 빨래 뒤에 숨은 꾀이도 봉 떠올랐지요. 꾀이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뭐야! 으 지독한 냄새.” 소용돌이치던 바람이 꾀이를 아래로 내팽개쳤어요. “으아아아.”

꾀이는 떨어지면서도 붙잡을 것을 찾았어요. 마침 가지를



활짝 펼친 나무가 보였어요. 꾀이는 나뭇가지를 향해 팔을 뻗었어요. 하지만 팔이 짧아 닿지 않았어요. 꾀이는 뱅글뱅글 돌며 아래로 푹 처박혔어요. 나무가 드문드문 서있는 동네 공원이었지요. 꾀이는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꿈쩍도 안 했거든요.

\*\*\*

“쿵쿵. 무슨 냄새지?” 길고양이가 앞발로 꾀이를 톡톡 건드렸어요. 그 바람에 꾀이가 정신을 차렸지요. 눈을 떠보니 노란 고양이 눈이 꾀이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괜찮아? 너 어디서 맡은 거 같은데.” 꾀이는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걸을 수는 없었어요. “거기에 데려다줘. 부탁이야.”

꾀이는 고양이 등에 업혔어요. 자기 냄새가 나는 곳이 궁금했거든요. 얼마쯤 가자 하얀 강아지와 여자아이가 벤치에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고양이는 강아지 앞에 꾀이를 내려놓았어요. 그러자 여자아이가 소리쳤어요.

“쿵쿵. 우리 설탕이 꼬소한 발냄새네. 아이 좋아.” 꾀이는 놀라 넘어질 뻔했어요. 이제껏 청국장 냄새인 줄 알았는데 강아지 발 냄새였거든요. 더 이상 나쁜 냄새가 아니고 좋은 냄새가 된 거죠. 꾀이는 꽃 모양의 강아지 발바닥에 착 달라붙었어요. 여자아이가 강아지를 꼭 안았죠. “아, 행복해.” 꾀이는 입꼬리를 한껏 올리며 말했어요. 아픈 것도 힘든 것도 설탕처럼 사르르 녹아내렸거든요.



★ 작가 PROFILE: 고훈실  
제16회 살의향기 동서문학상  
아동문학 가작 수상





# Cape Town, Republic of South Africa

반전 매력을 지닌  
아프리카 최대의 관광도시            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대륙 최남단에 자리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 개의 공식 수도를 가지고 있다. 행정수도와 사법수도, 입법수도가 모두 다른 가운데 입법수도를 맡고 있는 케이프타운은 대륙 내에서 가장 많은 여행자가 몰려드는 관광 천국이다.

글/사진. 태원준 [여행작가]





1. 탁자처럼 평평한 모습의 테이블마운틴은 케이프타운의 랜드마크다.
2. 테이블마운틴에서 바라본 항구도시의 환상적인 풍경.
3. 테이블마운틴은 케이블카를 타고 오를 수 있다.
4. 케이프타운 V&A 워터프론트에 올라온 바다사자.

## 도시의 상징, 테이블마운틴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 떠올리는 뻘한 이미지가 아닌, 도시가 품고 있는 의외의 풍경 덕이다. 지중해와 비교해도 조금도 밀리지 않는 근사한 해변, 초원 대신 도심 복판에 솟아오른 웅장한 산과 낭만이 깃든 수많은 건물. 거기에 놀랍게도 펭귄(!)까지 등장해 여행자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곳이니 말 다 했다.

케이프타운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오는 건 도시 중앙에 딱하니 들어앉은 테이블마운틴이다. 도시의 상징이자 여행객 유치의 일등 공신인 이 산은 이름 그대로 탁자처럼 평평하다. 으레 산하면 연상되는 삼각형의 형상이 아닌 삼각형의 윗부분이 댕강 잘려나간 듯한 모양새라 보고 또 봐도 신기하다. 이

기묘한 산이 머물던 곳은 원래 깊은 바닷속이었다. 아주 오래전, 심해에 웅크리고 있던 거대한 사암 덩어리는 지각변동으로 인해 어느 순간부터 슬금슬금 솟아오르기 시작하더니 물 밖으로 튀어나와 해발 1,080미터대까지 키를 높인 뒤 이젠 오히려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다. 생김새만큼이나 형성 과정과 역사마저 독특하다. 테이블마운틴이 전 세계에 이름을 더욱 알리게 된 건 2011년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면서부터다.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우리의 제주도 등과 함께 해당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며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고의 보물임을 다시금 인정받았다. 등산의 재미를 느끼고자 한다면, 두 발로 정상까지 오를 수 있으나 등산하면 한숨부터 나오더라도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일명 등산 치트키

인 케이블카가 산꼭대기까지 설 새 없이 관광객을 실어나르니 말이다. 더욱이 정상까지 채 5분도 걸리지 않으며 천천히 360도 회전하는 원통형 케이블카라 굳이 자리싸움을 벌일 일도 없다. 상부 정거장에 다다르면 테이블마운틴이라는 이름이 바로 실감난다. 마치 돌로 이뤄진 평야처럼, 산의 정상부라 하기엔 너무도 매끄럽고 평평한 산책로가 이곳저곳으로 뻗어있어 고맙게도 연골에 아무런 무리를 가하지 않고도 여유로운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 환상적인 전망은 덤이다. 산책로 곳곳에 등장하는 전망 포인트에 설 때마다 아름다운 항구도시 케이프타운의 전경과 짙푸른 바다가 주머니 받거나 여행자의 흥분 지수를 높여준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한 편이라면 헬리콥터 투어에 나서는 것도 좋다. 테이블마운틴 위를 비행

하며 전체적인 산악 지형을 단숨에 파악할 수 있다.

## 아프리카에 펭귄이라니, 볼더스 비치

그러나 바닷속에서 극적으로 솟아오른 바위보다 더욱 충격적인 장면은 도시 남쪽의 해변에서 펼쳐진다. 주택가를 따라 이어진 볼더스 비치(Boulder's Beach)에선 펭귄이 돌아다닌다. 이게 뭔 사막에 폭우가 쏟아지는 소리냐 싶겠지만 정말이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남극에서나 볼 수 있을 거라 연상되는 하얗고 까만 펭귄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멀쩡하게 집단 서식한다. 키가 30~40센티미터 정도에 불과한 자카스 펭귄은 따뜻한 해류에 머무는 희한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 섭씨 30도가 훌쩍 넘는 케



이프타운 해안가에 살림을 차렸다. 케이프타운에 살아 케이프 펭귄이라 불리기도 하며 눈가의 분홍빛이 귀여움을 한 단계 증폭시킨다. 언제 방문해도 볼더스 비치의 백사장과 바위군락 사이로 깜찍한 존재들이 뒹뒹거리며 여행객의 혼을 빼놓는다. 바다로 나가 오징어나 조개를 잡아먹다가 해변으로 돌아와 알을 품거나 새끼를 돌본다. 주로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지만, 종종 더위를 식히기 위해 주택가 산책

로나 주차된 자동차 아래로 뛰어들기도 하니 동네를 걷다가 마주치는 생명체가 길고양이나 비둘기가 아닌 펭귄이라는 사실이 놀라움을 넘어 황당하다. 다만 이 귀하신 몸을 마주하기 위해선 해변 입장료 명목으로 만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해야 하고 개체 보호를 위해 간격을 두고 먼발치에서 구경해야 한다. 그래도 남극투어비가 통상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걸 감안한다면 볼멘소리조차 사치다. 펭귄 덕분에 볼더



1. 볼더스 비치 모래사장에는 자카스 펭귄.  
2. 해변의 자카스 펭귄을 보기 위해 물려든 관람객.  
3. 남아프리카공화국 최고의 해변으로 꼽는 캄스 베이. 아름다운 풍경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진다.  
4. 쇼핑몰과 레스토랑이 있는 현대적인 관광지 케이프타운 워터프론트.



스 비치에 유난히 많은 인파가 몰릴 뿐 훌륭한 해안선을 머금은 케이프타운엔 인기 좋은 해변이 널리고 널렸다. 캄스 베이 해변과 클리프턴 해변엔 늘 해수욕을 즐기려는 현지인과 여행객이 몰리고 서핑족도 풍경을 빛낸다. 해변 주위엔 분위기 좋은 바와 레스토랑, 바다 전망의 숙소가 줄지어 이어진다. 여기가 아프리카인지 캘리포니아인지 헷갈리기 시작한다면 케이프타운에 이미 빠져든 뒤다.

### 대항해 시대의 시작, 희망봉

내친김에 케이프타운 남쪽 끝으로 향하면 그 유명한 희망봉에 닿을 수 있다. 학창 시절에 교과서를 통해 배웠던, 셀 수 없이 많은 탐험가가 신세계를 발견하기 위해 거친 갔던 역사의 현장엔 이제 그들의 탐험 정신의 이어받은 세계 여행자들이 드나든다. 누구의 발자국도 허락하지 않았던 이곳은 1488년 포르투갈의 항해자 '바르톨로메우 디아스'에 의해 발견되었다. 15세기 포르투갈 리스본을 중심으로 신항로를 개척하고자 시작된 대항해시대의 큰 공을 세운 세기의 발견이었다. 디아스가 배를 타고 이곳에 도착해 아프리카 남쪽 끝자락임을 확인했고 이어 1498년, '바스쿠 다 가마'는 여기를 돌아 마침내 인도 대륙에 닿을 내렸다. 본격적으로 바닷길을 통해 유럽과 아시아가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첫 발견 당시엔 심한 폭풍이 몰아쳐 '폭풍의 곳'이라 불렸으나 포르투갈의 왕 주앙 2세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자는 희망을 담아 무시무시한 이름 대신 희망봉



5. 아프리카의 땅끝으로 통하는 희망봉.  
6. 케이프포인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관광객.

이란 멋진 이름을 하사했다. 정확히는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서단이나 역사적 상징성 때문인지 현재는 아프리카의 땅끝으로 통하며 케이프타운의 핵심 여행지로 대접받는 중이다. 경도와 위도가 표기된 희망봉 포토존엔 항상 긴 줄이 늘어선다. 여전히 길 잃은 항해자의 희망이 되어주고 있는 등대가 희망봉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 위의 절벽 꼭대기까진 등산로를 따라 혹은 푸니쿨라를 통해 쉬이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전망대에서 서면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갔던 대항해시대 주인공들의 마음으로 대서양과 인도양을 동시에 눈에 담을 수 있다. 그 사이 가슴엔 뜨거운 감동도 함께 담긴다. 자연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내어주는 케이프타운. 여행자에게는 종합선물세트와도 같은 이 도시는 어쩌면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관광도시가 아닐까?



나라별 커피 문화



###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커피

## ‘카페 소스페조’의 나라, 이탈리아

커피라는 단어는 하나지만 시대와 나라에 따라 ‘커피’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다양하였고, 지금도 그렇다.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커피는 물에 타서 마시는 인스턴트 커피였고, 원두 가루를 이용해서 내리거나 끓여 마시는 커피는 원두커피, 블랙커피, 레귤러커피 등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 지금은 커피라고 하면 아메리카노를 의미한다. 반면 미국 사람들에게 커피는 오랫동안 커피메이커로 내리는 레귤러커피를 의미하였고, 물에 타서 마시는 커피는 커피가 아니라 인스턴트커피 혹은 슬류블커피로 불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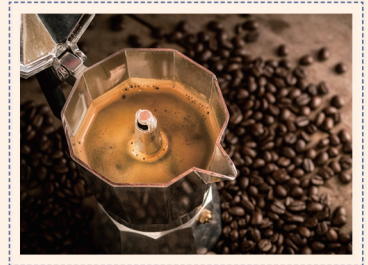
글: 이길상 [커피인문학자, 교육학박사] | 일러스트: 마시



## 인류 커피 문화를 이끌어온 나라

이탈리아인들에게 커피는 예나 지금이나 에스프레소다. 이들에게 아메리카노나 인스턴트커피는 엄밀한 의미에서 커피가 아니다. 이탈리아의 이런 커피문화는 긴 역사를 통해 만들어졌고, 세계 여러 나라의 커피문화에 끼친 영향이 대단히 크다. 좋은 원두를 강하게 볶아서 내린 에스프레소에 물, 우유, 또는 각종 시럽 등을 가미하여 즐기는 커피문화, 즉 1970년대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반세기 이상 세계 커피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커피 제2의 물결의 뿌리 또한 이탈리아다. 최근에 불기 시작한 커피 제3의 물결은 이런 이탈리아식 에스프레소 문화에 대한 도전이다. 이처럼 이탈리아는 지난 1세기 동안 인류 커피문화를 이끌어온 커피문화의 고향이다.

이탈리아의 커피 역사는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상업활동이 활발했던 베네치아공화국은 유럽 대륙에서 가장 먼저 커피를 마신 지역의 하나다. 정확한 자료가 남아 있지는 않지만, 베네치아가 오스만 제국의 커피문화가 유럽으로 전파된 관문이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예컨대 유럽에서 커피를 마신 기록을 가장 먼저 남긴 잉글랜드의 의학자 윌리엄 하비(William Harvey)는 1599년부터 1602년까지 베네치아의 파도바대학(Università di Padova)에 유학하여 의학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인물이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커피를 경험한 후 귀국하여 런던 의과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무역업을 하던 동생들의 도움으로 커피 원두를 구입해 커피 마시기를 즐겼다. 그가 커피 음용 기록을 남긴 것은 1627년이다. 18세기 들어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카페 문화가 급속히 발전하여, 1763년쯤에 베네치아에만 200개의 카페가 있었다. 당시 이탈리아의 커피 음용 방식은 튀르키예식이었다. 즉, 커피 가루를 물에 넣고 끓인 후 조심스럽게 따라 마시는 식이었다. 이런 방식에 변화가 시도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들어서였다. 여러 가지 커피포트가 개발되고 응드립이 시도되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이런 변화의 중심이었다. 이런 시도들이 1820년대 이후 1840년대까지 세계 제1차 커피 붐을 가져왔다. 1870년대 후반 실론과 자바 등 아시아 커피 생산 지역을 붕괴시킨 커피 녹병, 이로 인한 커피 가격의 급등은 새로운 커피문화를 가져왔다.



미국인들이 커피에 물을 타서 연하게 마시는 방식을 선택한 반면, 이탈리아인들은 아라비카종보다 카페인 함량은 많지만, 가격이 저렴한 로부스타종 커피를 즐기 시작하였다. 1933년 무솔리니가 추진한 자국 알루미늄 산업의 촉진 과정에서 알폰소 비알레티에 의해 개발된 모카포트는 가정에서 간단하게 에스프레소를 즐길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간단한 열원만 있으면 집에서 진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홈카페 문화를 연 것이다. 지금도



세계 많은 나라의 카페에 설치된 에스프레소 기계 중 이탈리아 브랜드가 적지 않고,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에도 이탈리아 제품이 많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늘 이탈리아를 만나는 셈이다. 세계 유일의 커피 전문 대학 'Università del Caffé'는 이탈리아의 트리에스테(Trieste)에 있다.

## 어떻게 탄생한 스타벅스 1호점

이런 이탈리아에 2018년 9월 7일 스타벅스 1호점이 문을 열었다. 에스프레소 머신의 고향 밀라노에 오픈하였다. 5년이 지난 2023년 말 기준 이탈리아에는 31개의 스타벅스 매장이 영업 중이다. 영국의 911개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 프랑스의 238개, 독일의 151개 등에 비해서도 적다.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는 3개뿐이다. 세계적인 프랜차이즈조차 이탈리아 고유의 커피문화를 넘어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탈리아에는 흔히 '바르(bar)'라고 하는 소규모 커피집과 커피를 제공하는 음식점인 카페가 공존한다. 바르는 골목에서 흔히 만나는 작은 커피 가게이고, 카페는 규모가 이보다 크고 멋진 레스토랑이다. 물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바르에서 까페(café)라고 발음하는 커피를 시키면 적은 양의 진한 에스프레소가 나온다. 우리나라 카페에 있는 메뉴 에스프레소가 따로 없다. 커피는 에스프레소다. 물론 관광지에는 바르에서 외국인도 에스프레소를 주문해도 알아듣는다. 아메리카노를 마시려면 '까페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면 된다. 따뜻한 물이 별도로 나오기도 한다.

드립커피는 '까페 필터'나 '까페 필터라토'라고 하는데 이 음료를 제공하는 바르는 많지 않다. '까페 룱고'는 물이 조금 더 들어간 에스프레소, 그러니까 에스프레소와 아메리카노의 중간 정도 되는 음료이고, '까페 리스뜨레토'는 물이 조금 덜 들어간 아주 진하고 양이 적은 에스프레소다. '까페 마끼아또'는 스팀드 밀크를 위에 살짝 얹은 에스프레소를 의미한다. 진한 더블 샷 에스프레소는 '까페 도피오'인데, 이탈리아인들이 즐기는 방식은 아니다. 두 잔의 에스프레소가 필요하면 가까운 바르에 두 번 간다. 카푸치노는 우리나라 카페 메뉴에 있는 카푸치노와 비슷하게 에스프레소 1/3, 스팀드 밀크 1/3, 우유거품 1/3로 된 부드러운 음료다. 우리 식 라떼를 원하면 정확하게 '까페 라떼'라고 해야 한다. 라

떼는 우유를 의미한다. 에스프레소에 곱낙 등 알콜 음료를 가미하여 만드는 '까페 코레토'는 북부 지방에서 추운 겨울철에 저녁 식사 후에 마시는 것이 보통이다. 요즘 여름 커피 음료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까페 샤케라토'다. 에스프레소, 얼음, 설탕을 칵테일 제조용 셰이커에 넣고 흔들어서 만드는 계절 음료다. 아이스크림은 '까페 프레도'라고 한다.

이탈리아인들은 우유가 들어간 커피 음료를 오전 11시 이후에는 거의 마시지



않는다. 특히 식후에 카푸치노나 까페 라떼를 마시지는 않는다. 더운 우유가 소화엔 나쁘다는 오래된 인식 때문이다. 우유가 들어간 커피 음료는 아침 식사용으로 마시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이탈리아인들은 커피를 식사 후에 마시지, 식사와 함께 마시지도 않는다. 이탈리아인들은 커피 음료를 테이크아웃으로 받아 들고 나가는 행동을 하지 않는 편이다. 커피는 당연히 바르나 카페에서, 대화를 하며 즐기는 사회적 음료이지 길거리를 걸으며 마시는 음료가 아니다.

## 이탈리아의 커피문화를 제대로 만나는 공간

바르에서 선 채로 마시지 않고 테이블에 앉아 편히 마시는 커피는 두 배 정도 비싸다. 자릿값과 봉사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커피와 함께 물이 담긴 작은 잔이 나오면 이것은 커피를 마시기 전에 입을 깨끗하게 한 후, 커피 본연의 맛을 즐기라는 바리스타의 배려가 담긴 서비스다.

이런 이탈리아의 커피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유서 깊은 카페들이 도시마다 자리 잡고 있다. 먼저 베네치아에는 1720년에 문을 연,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까페 플로리안'이 있다. 도시의 중심 산 마르코 광장에 있다. 북부 이탈리아에는 1895년에 라바짜가 창업된 도시 토리노가 있다. 이곳을 상징하는 카페는 1763년에 문을 연 '까페 알 비세린느'다. 시그니처 메뉴는 초콜릿, 커피, 크림이 합해진 음료 비세린느다. 수도 로마에는 이탈리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1760년에 문을 연 '까페 그레코' 가스페인 계단 가까이에 있다. 고틀, 스탕달, 키초, 바이런, 마크 트웨인 등이 다녀간 곳이어서 유명하다. 이외에도 1944년에 문을 연 이래 '그라나타 디 까페 콘파냐'라는 달콤한 음료를 제공하는 '타짜도로'나, 실내 장식이 멋진 '산트 유스타치오 일 까페'도 가볼 만하다.

항구도시 나폴리에는 '까페 소스페조(Caffé sospeso)'라는 아름다운 문화가 있다.

2차 대전 직후 어려운 시절, 돈이 있는 고객이 두 잔의 커피값을 지불하고 나가면, 가난한 누군가가 커피값을 지불하지 않고 한잔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배려의 문화였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 이런 커피 문화가 이 지역에서 다시 살아났다. 커피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회적 음료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Caffé Sospeso





# \* 단오의 다른 이름 '수릿날'과 수리떡



신윤복 [단오풍정(端午風情), 28.2×35.2cm] ©간송미술문화재단

“장장채승(長長彩繩: 오색의 비단실로 끈긴 동아줄) 그넷줄 휘늘어진 벽도(碧桃, 선경[仙境]에 있다는 전설상의 복숭아)까지 휘휘 칭칭 감어 매고 섬섬옥수(纖纖玉手) 번듯 들어 양 그넷줄을 갈라 잡고 선뜻 올라 발 굴러한 번을 툭 구르니 앞이 번듯 높았네. 두 번을 구르니 뒤가 점점 멀었다.” 이 구절은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서 춘향이가 그네 타는 장면인데, 그네뛰기는 단오날의 대표적 민속놀이이다. 우리 겨레는 예부터 설날, 한식, 한가위와 함께 단오를 4대 명절로 즐겼지만 이제 그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

글. 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우리문화신문 발행인]

## ♣ 단오의 이름들과 유래

단오는 단옷날, 천중절(天中節), 포절(蒲節: 창포의 날), 단양(端陽), 중오절(重午節, 重五節)이라 부르기도 하며, 우리말로는 ‘수릿날’이라 한다. 단오의 ‘단(端)’자는 첫 번째를, ‘오(午)’는 다섯으로 ‘초닷새’를 뜻한다. 중오는 오(五)의 수가 겹치는 음력 5월 5일을 말하는데, 우리 겨레는 이날을 양기가 왕성한 날이라 생각했다. 음양철학에 따르면 홀수를 ‘양(陽)의 수’라 하여 좋은 수로 여겼다. 따라서 이 양의 수가 중복된 날은 단오와 함께 설, 삼짇날(3월 3일), 칠석(7월 7일), 중앙절(9월 9일) 따위로 모두 명절이다.

고려가요 《동동(動動)》에 보면, 단오를 ‘수릿날’이라 하였다. 또 조선 후기에 펴낸 《동국세시기》 기록에서는 수릿날은 썩떡을 해 먹는데, 썩떡 모양이 수레바퀴 같다고 해서 ‘수리’고 했다. 여기서 수리란 고(高)·상(上)·신(神) 등을 의미하는 옛말인데, ‘신(神)의 날’, ‘옴뜰 날’이다. 단오는 더운 여름을 맞기 전 초여름 계절이며,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기풍제를 뜻하기도 한다.

## ♣ 단오 세시풍속, 창포물에 머리 감고 부채 선물하기

단오는 명절인 만큼 여러 가지 세시풍속이 있었는데 먼저 단오장(端午粧)은 단옷날 아낙네들이 특별히 하는 화장을 말한다. 아낙네들은 창포뿌리를 잘라 비벼로 만들어 머리에 꽂아 두통과 액운을 막고, 창포 삶은 물에 머리를 감아 윤기를 냈다. 또 단옷날 새벽 상춧물에 맞힌 이슬을 받아 분을 개어 얼굴에 바르면 버짐이 피지 않고 피부가 고와진다고 생각했다.

아낙네들이 단오장을 할 때 남자들은 단옷날 창포뿌리를 허리에 차고 다니는데, 그렇게 하면 ‘귀신을 물리친다’라고 믿었다. 단옷날 가운데서도 낮 11시 ~ 1시인 오시(午時)가 가장 양기가 왕성한 때로 농가에서는 약쑥, 익모초, 짚레꽃 따위를 따서 말려둔다. 오시에 뜯은 약쑥을





단오에는 “더위 타지 말고 건강하라”라는 뜻으로 부채를 선물한다. (그림\_이무성 한국화가)

다발로 묶어서 대문 옆에 세워두면 재액을 물리친다고 했다.

지인들을 위한 따뜻한 풍속도 있다. 해마다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에게 부채를 선물하며 좋은 기운을 전했다. 이렇게 부채를 선물하는 풍습에는 더위 타지 말고 건강히 지내라는 뜻이 담겨 있다. 단오에 부채를 선물하는 것을 동지의 달력 선물과 함께 ‘하선동력(夏扇冬曆)’이라 한다.

이 외에도 ‘대추나무 시집보내기’는 단오날 정오에 대추나무 가지를 치거나 가지 사이에 돌을 끼워 놓아 더 많은 열매가 열리기를 기원하는 풍습도 있었는데 이는 한자말로 시집가다 ‘가(嫁)’ 자에 나무 ‘수(樹)’ 자를 더해 ‘가수(嫁樹)’라고도 부른다. 아낙네들이 썩, 대쪽, 형겅 따위로 호랑이 모양을 만들어 단오날 머리에 이면 재액을 물리친다고 믿었던 ‘썩-호랑이’ 풍속도 있다.

### ♣ 단오 시절음식, 수리떡·앵두화채·제호탕

단오 액땀 풍속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먹거리다. 수리취떡(수리떡), 앵두화채, 제호탕 등 단오 무렵 즐겨 먹던 음식은 마음과 몸의 건강을 동시에 생각한 우리 겨레의 슬기로움이 담겨 있다.

먼저 단오날의 대표적인 음식은 수리떡이다. 《동국세시기》에 보면 “이날은 썩잎을 따다가 찌고 멥쌀가루 속에 넣어 반죽하면 초록색이 나는데 이것으로 떡을 만든다. 그리고 수레바퀴 모양의 무늬를 찍어 빚는다”라는 풍속을 전한다. 여기에 나오는 떡이 바로 수리떡이다. ‘수리취 절편’ 또는 ‘차륜병(車輪餅)’이라고도 한다. 또 단오 전날 밤이슬을 맞혀 두었던 여러 가지 풀을 가지고 단오날 아침에 떡을 해 먹었는데 이를 ‘약떡’이라 했다.

단오의 제철 과실에는 앵두, 오디, 산딸기가 있는데 특히 앵두 씨를 빼고 꿀에 재었다가 다시 꿀물에 넣은 ‘앵두화채’를 먹는 것도 별미였다. 또 단오날에는 ‘제호탕(醴糊湯)’도 먹었다. 제호탕은 덜 익은 매실을 짚불 연기에 그을려 말린 오매(烏梅)를 잘게 빻아 끓는 물에 가루를 넣어 마시거나 아예 꿀에 버무려 냉수에 타서 들이키는데, 새콤한 맛이 난다. 이밖에 ‘준치만두’라는 명절 음식도 있는데, 갖은양념을 하여 채워 둔 준치 살과 쇠고기를 두부, 오이와 함께 밀

가루와 녹말가루를 입혀 삶아서 초장에 찍어 먹어도 좋고, 장국에 넣어 먹으면 훌륭한 여름철 보양식이 된다.

### ♣ 단오의 민속놀이, 그네와 씨름 그리고 단오굿

단오의 대표적인 놀이는 그네뛰기와 씨름이다. 조선 후기의 화가 신윤복의 <단오풍정(端午風情)>에 부녀자들이 그네 뛰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네뛰기를 큰 행사로 할 때는 통나무를 양쪽에 세우고 그 위에 통나무를 가로질러 묶은 다음 그넛줄을 메는 ‘땅그네’로 했다. 종목은 ‘높이뛰기’, 그네 앞에 장대를 세우고, 장대에 방울을 달아 놓아 발로 차도록 하는 ‘방울차기’, 두 사람이 마주 올라타고 뛰는 ‘쌍그네뛰기’가 있었다.

또 지금도 많은 사람이 즐기는 씨름에는 왼씨름, 오른씨름, 띠씨름 세 가지가 있다.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허리를 쥐고 왼손으로 상대방의 살바를 잡는데 이것을 바른씨름(오른씨름)이라 하며, 경기도와 전라도 지방에서 주로 했다. 손잡는 것이 반대인 것을 왼씨름이라 하는데 함경, 평안, 황해, 경상, 강원도 등에서 했고, 띠씨름은 허리에다 띠를 매어 서로 잡고 하는 씨름인데 ‘허리씨름’ 또는 ‘통씨름’이라 하며 주로 충청도에서 했다. 이렇게 따로 치르던 씨름은 1931년 제2회 전조선씨름대회부터 ‘왼씨름’ 한 가지로 통일되었다. 따라서 현재 대한씨름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씨름 경기와 각 학교에서 가르치는 씨름은 ‘왼씨름’이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단오절에 ‘단오제’나 ‘단오굿’ 행사를 했다. 그러던 것이 조선총독부의 문화말살정책과 대한제국 이후 신파연극이나 영화 등에 밀려 현재는 거의 사라졌다. 강원도 강릉지방의 강릉단오굿, 전남 법성포 단오제 등이 겨우 명맥을 잇고 있다. 더는 단오를 명절로 지내지 않더라도 이웃에 부채를 선물하는 아름다운 풍속은 남겨두었으면 좋겠다.



단오제 때 행해지는 탈놀이



전통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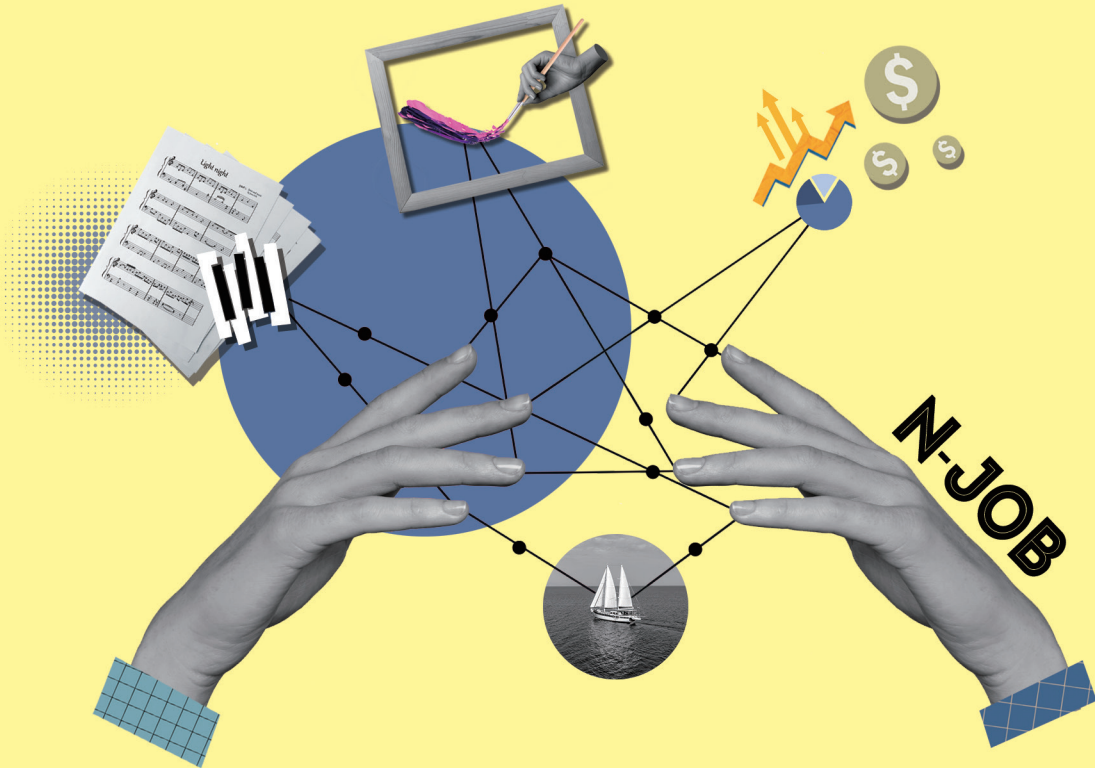
무소르스키  
전람회의 그림(Kurt Masur  
& Leipzig Gewandhaus  
Orchestra)



림스키코르사코프  
세헤라자데(Maestro:  
Valery Gergiev · Vienna  
Philharmonic)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5인조, 외교관 루벤스  
그리고 증권사 직원이었던 고갱

## N잡러 작곡가와 화가

최첨단 기술, 시와 소통하며 살아야 하는 현대 사회에 N잡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하나의 직업으로는 100세 시대를 살기 힘들다. 그런데 과거에도 N잡러의 길을 걸었던 작곡가와 화가가 있었다. 해군 장교와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하급관리로 살았던 러시아 5인조의 작곡가들과 증권사 직원으로 일하다 타히티로 떠난 고갱, 르네상스 시대 외교관으로 활동하면서 왕실의 그림과 커다란 부를 획득했던 루벤스의 삶을 들여다보자.

글. 조현영(클래식 칼럼니스트, 피아니스트)

## 임야국 말단 관리로 말년까지 일한 '무소르스키'



러시아 음악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전통음악을 고수하며 러시아 정서를 중요시하는 '러시아 5인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서유럽의 영향을 받은 두 명의 작곡가 차이콥스키와 라흐마니노프 부류다. '러시아 5인조'였던 작곡가 무소르스키(1839~1881)는 차이콥스키(1840~1893)

보다 겨우 1살 위다. 나이는 한 살 차이지만 두 사람의 음악은 상당히 다르다. 무소르스키의 음악이 광활한 러시아와 어울리는 남성적 음악인 데 반해, 차이콥스키 음악은 서정적이고 여성적이다. '러시아 5인조'는 국민주의 성향을 보인 작곡가들로, 무소르스키, 발라키레프, 보로딘, 큐이, 림스키 코르사코프 등이 함께 조직한 음악 악파이다.

무소르스키는 하급 관리를 맡고 있던 생업형 작곡가였다. 그는 교양 있고 부유한 부모 덕택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사관 학교에서 공부했고, 그곳에서 러시아 5인조의 나머지 인물들을 만나게 된다. 무소르스키의 집안은 원래 부자로 어린 시절에는 풍족한 삶을 누렸지만, 1861년 농노 해방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 무소르스키는 1863년부터 우리나라의 교통부에 해당하는 러시아 운수성에 취직해서 하급 관리가 되었지만, 몇 년 뒤 해고되었고, 임야국에 말단 관리로 취직해 인생의 말년까지 그 일을 하게 된다. 그의 작품 중 대표적인 곡으로 교향시〈민둥산의 하룻밤〉은 러시아 남부 키예프의 트라고라프라 산에서 성 요한제의 전설에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는데, 온갖 마녀와 귀신들이 민둥산에 모여 악마를 기쁘게 하는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대규모의 관현악으로 연주되며 무시무시하고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는 1874년에 절친했던 건축가이자 화가 하르트만의 작품을 보고 피아노 모음곡〈전람회의 그림〉을 작곡했다. 빅토르 하르트만이 1873년 동맥류 파열로 갑자기 죽자, 하르트만의 친구인 블라디미르 스타소프는 하르트만의 유작 중 중요 작품을 모아 1874년에 추모 전람회를 개최했는데, 이 전시회에 참여한 무소르스키는 전시된 10개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같은 해에 이 작품을 완성하고 스타소프에게 헌정했다.

## 해군 장교로 바다를 보며 영감을 얻은 '림스키코르사코프'

무소르스키와 함께 러시아 5인조 활동을 했던 림스키코르사코프(1844~1908)도 본업이 따로 있었던 작곡가였다. 그 역시 처음부터 음악가가 되려 했던 것은 아니고, 해군 장교의 꿈을 품고 해군 사관학교에서 공부했다. 림스키코르사코프도 무소르스키처럼 귀족 집안의 자식이었다. 그는 바다근무를 하면서 떠오르는 악상을 가지고 작곡을 하기 시작했고, 음악가로서의 꿈을 펼쳤다. 작곡가 발라키레프(1837~1910)는 림스키코르사코프가 바다에 나가지 않고 육지에 있는 시간에는



Rimsky Korsakov [1844-1908]



항상 음악을 가르쳐줬는데, 27살에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음악원 교수로 임명된다. 그는 늦은 출발의 음악가였지만 러시아인으로서 최초로 교향곡을 썼고 교향시와 오페라 작곡에도 힘을 쏟았다. 1888년에 작곡한 관현악 모음곡 <세에라자드>에서 세에라자드는 도시라는 뜻의 '세에라'와 태어난다는 뜻의 '자드'가 더해진 페르시아 말로, 도시에서 태어난 소녀라는 뜻이다. 아내에게 배신을 당한 왕이 온 나라의 여자를 데려다가 하룻밤을 보낸 후 죽이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지혜로운 여인 세에라자드는 날마다 재미난 이야기를 해서 천일을 넘기고 결국 왕의 화를 사랑으로 변모시킨다. 어린 시절 읽었던 천일야화, 아라비안나이트의 주인공이 바로 이 세에라자드다. 모음곡 <세에라자드>는 전체 4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선율이 굉장히 비슷하다.

### 예술 외교관 역할을 해낸 '페테르 파울 루벤스'

유럽의 유명 미술관에 가면 두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작품 중 하나가 페테르 파울 루벤스(Peter Paul Rubens, 1577~ 1640)의 그림이다. 루벤스는 대부분 큰 화폭의 그림을 그렸으며, 왕이나 귀족 등 부유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의 일상을 작품으로 남겼다. 그는 독일 태생으로 17세기 바로크를 대표하는 플랑드르 화가다. 서양 문화의 보고인 이탈리아에서 8년 동안 머물면서 르네상스 미술을 연구했고, 이탈리아 바로크 화가인 카라바조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이탈리아 북서부에 위치한 만토바의 공작에게 인정받았다. 그 덕에 외교관의 역할을 하며 스페인 여행을 하기도 했다. 고향을 떠나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와 1609년에 플랑드르에서 궁정화가로 활동했다. 명문가의 딸과 결혼하면서 명성은 더욱더 높아졌고, 여유롭고 우아한 품성 덕에 주변에 많은 제자들을 두고 유럽의 각국 왕실에서 러브콜을 받으며 왕과 귀족들에게도 사랑을 받았다. 왕들은 앞다투어 루벤스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담은 그림을 주문했는데, 마리 드 메디치의 일생을 묘사한 24개의 연작이 아주 유명하다. 프랑스의 왕 앙리 4세 부인이었던 마리 드 메디치는 자신의 출생부터 당시의 모습까지 특별했던 사건을 신화처럼 멋있게 그려 줄 화가가 필요했는데, 루벤스는 거기에 아주 적합한 화가였다. 특히 1600년 이탈리아 피렌체의 공주 마리 드 메디치가 마르세유 항구의 배에서 하선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을 보기 위해 루브르로 몰려드는 사람은 꽤 많다. 루벤스는 주문하는 사람이 원하는 그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보다는 주문자의 의도를 잘 읽어내서 만족할 만한 그림을 그렸다.

Peter Paul Rubens [1577-1640]



### 도선사, 증권사 직원이었던 '폴 고갱'

플랑드르에 루벤스가 있다면 프랑스의 고갱 역시 여러 직업을 가진 화가였다. 고갱의 친분으로 유명한 화가 폴 고갱은 신문기자였던 아버지가 페루에서 신문사를 차리기를 위해 이주하는데, 불행히도 아버지가 페루로 가는 배 안에서 죽게 되자 고갱의 어린 시절은 매우 어려웠다. 그는 도선사가 되어 세계 전역을 돌아다니다 인도 항해 중에 어머니의 부고를 받고 다시 파리로 돌아온다. 그리고 1872년부터는 선원 생활을 접고 증권거래소에 취직한다. 이듬해인 1873년에는 메테 소피 가트와 결혼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졌고, 그림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다. 미술품 수집으로 시작했던 그림에 관한 관심은 화가라는 직업을 꿈꾸게 했다. 프랑스 주식시장의 붕괴와 화가에 대한 야망이 합쳐지면서 그는 전업 화가로서 변모하고 가정을 떠나 혼자만의 시간을 자주 보냈다. 자연스럽게 부인과의 사이는 멀어지고, 결국엔 남프랑스 아를에 있는 고갱의 노란 집에서 같이 살며 그림을 그린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그의 방향은 멈추지 않았고, 고갱과는 점차 다른 화풍을 발견하면서 문명을 뒤로 한 채 남태평양의 타히티로 떠난다. 타히티에서 처음은 원주민의 건강한 인간성과 열대의 밝고 강렬한 색채 덕에 고갱은 많은 희망과 꿈을 꿔지만, 점차 가난과 빈곤, 고독에 시달려 가기 시작했다. 긴 가난과 외로움은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고 다시 파리로 돌아온다. 고갱은 파리에서 자기 작품을 알리기 위해 여러 직업을 시도했지만 여의찮았고, 1895년 다시 남태평양으로 향했다. 그는 타히티의 파페에테에서 자신의 마지막 작품인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완성한다. 여러 직업을 병행하며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자 노력했지만, N잡러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성공적으로 잡지 못했던 경우도 있다. 고갱의 마지막 작품처럼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지금 이 순간 마음의 소리에 집중해서 순간을 충실하고 행복하게 살아낸다면 그걸로 괜찮지 않을까?

Paul Gauguin [1848-1903]



1. 루벤스 - 마르세유항에 도착(1622~1625) 루브르미술관 2. 폴고갱 -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1897)





# 봄날의 걷기를 좋아하세요? 우리가 여행할 이유, 철원

강원도 철원이 변했다. 철원을 단지 안보 여행지로만 기억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천혜의 자연과 태곳적 신비를 감상하는 아찔한 벼랑길과 봄꽃의 향연을 즐길 수 있는 드넓은 꽃밭, 시간 여행자처럼 산책하는 재미까지, 철원의 봄은 다채롭기 그지없다.

글/사진. 임운석 [여행작가]

## 지구의 나이테가 남아 있는 한탄강 유역

강원도 철원을 가로지르는 한탄강은 화강암과 현무암, 그리고 주상절리가 빚어낸 걸작품이다. 한탄강은 한국의 그랜드캐니언이라 불린다. 절벽과 협곡이 발달한 까닭이다. 북녘땅 강원도 평강군에서 발원한 한탄강(136km)은 철원과 포천을 지나 연천에서 임진강과 만나 한강으로 흘러든 뒤 서해에서 강의 생명을 마감한다. 한탄강 일대는 2015년 12월 국가지질공원, 2021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지질 공원이란 지질과 경관(지형)을 보존하고자 만든 제도지만, 지질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서식하는 동식물과 역사, 문화까지 포함한다. 한탄강이 지질과 경관이 빼어난 이유는 태곳적에 활발한 화산활동으로 현무암 절벽과 주상절리, 폭포 등이 발달해서다. 이런 까닭에 여름에는 래프팅 명소, 겨울에는 얼음 트레킹 성지로 알려져 있다.

철원을 관통하는 한탄강 유역 가운데 순담계곡에서 드리니 마을까지, 약 3.6km 구간을 ‘철원한탄강 주상절리길’이라 부른다. 이 길의 매력은 절벽과 절벽 사이를 연결한 709m의 잔도에 있다. 잔도는 절벽에 매달린 길을 따라 경치를 보며 걷는 벼랑길이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천 길 낭떠러지를 걷는 기분을 온몸으로 실감하며 아름다운 풍경을 동시에 감상한다.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현무암 절벽과 주상절리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 잔도 이외에 2.2km에 이르는 데크길과 전망대 3곳, 교량 13곳 등이 있어 걷는 재미가 쏠쏠하다. 해설사는 순담계곡 쉼터와 드리니 쉼터에 상주한다.

주상절리길의 시작은 순담이나 드리니 매표소, 둘 중에 선택하면 된다. 순담 매표소에는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풍경을 조망하기 좋지만, 후반부에 가서 1,300여 개의 계단을 올라야 한다. 그에 반해 드리니 매표소에서 출발하면 초반에 계단을 내려가다가 이후부터 평지를 걷기 때문에 체력이 약한 탐방객에게 유리하다.



“ 철원을 관통하는 한탄강 유역 가운데 순담계곡에서 드리니 마을까지, 약 3.6km 구간을 ‘철원한탄강 주상절리길’이라 부른다. ”

1. 순담계곡에서 시작되는 한탄강주상절리길.
2. 아찔하게 돌출된 잔도.
3. 유난히 출렁거려 더 짜릿한 화강암교.







### 한탄강 따라 3.7km, 순담계곡에서 드르니마을까지

먼저 찾은 곳은 순담계곡 쉽터다. 순담계곡은 화강암 바위와 모래톱으로 이루어진 계곡으로 래프팅으로 유명하다. 쉽터를 지나면 반원 모양의 스카이 전망대를 마주한다. 절벽에 와이어를 고정하여 강을 향해 돌출된 이 전망대는 발을 들이자마자 오금이 저리고, 현기증이 날 만큼 눈앞이 아찔하다.

교량 13곳에는 다양한 지질 이야기가 곁들여져 있다. 첫 번째 다리는 단층교이다. 여기서 화강암 절벽의 다양한 단층을 보는 재미가 있다. 이어 선돌교에서는 화강암이 깎여 나간 모습을, 돌개구멍교에서는 암반 바닥에 생긴 원통 모양의 깊은 구멍을 볼 수 있다. 주상절리길에는 지질과 연관된 교량 이외에 '2번 홀교'라는 독특한 이름을 가진 다리가 있는데 인근 골프장의 2번 홀에서 골프공이 날아오는 곳이어서 그리 부른다. 하지만 보호망으로 다리를 에워싸서 골프공에 맞을 염려는 없다. 이후 현화교를 지나면 화강암 지대가 현무암 지대로 바뀐다. 다리에서 한탄강의 지질을 관찰했다면 여러 쉽터에서는 감성적으로 주상절리길을 즐길 수 있다. 한탄강 여울이 가마솥에서 물이 끓는 소리처럼 들리는 구리소 쉽터, 쪽빛 윤슬이 반짝이는 쪽빛 쉽터, 태봉국을 세운 궁예가 왕건에게 쫓길 잠시 들렀다는 드르니 쉽터 등이 그렇다.

### 임꺽정도 알아본 철원 제1경, 고석정

한탄강의 비경 가운데 고석정을 빼놓을 수 없다. 이곳은 한탄강 협곡 사이에 우뚝 솟은 고석바위 꼭대기에 있던 정자인데, 신라 때 지은 것으로 전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고석바위가 내려다보이는 고석루에서 아쉬움을 달랜다. 고석바위 주변 경치는 감탄하기에 부족하지 않다. 높이 20~30m에 이르는 절벽에 둘러 싸인 10m의 거대한 바위와 그 정상부에 의연하게 자란 소나무까지, 흔한 말로 신선이 놀 만한 풍경이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고석바위에 있는 동굴에 조선 명종 때 활동했던 임꺽정이 숨어 지냈다고 한다. 고석정 광장에 임꺽정 동상이 자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석정 인근에 자리한 고석정 꽃밭은 봄, 가을 두 번에 걸쳐 꽃축제가 열린다. 봄철엔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한 달간 푸지개 핀 꽃을 원 없이 즐길 수 있다. 고석정 꽃밭은 원래 포성 잦은 군사 훈련장이었으나 지금은 철원에서 이맘때 가장 핫한 꽃밭으로 변했다. 고석정 꽃밭에는 화려한 꽃을 주인공으로 다양한 조연들이 있다. 넓은 꽃밭을 편하게 앉아 이동하며 감상할 수 있는 강통열차, 인생사진을 남길 만한 포토존, 축제를 더욱 흥겹게 하는 버스킹 공연 등 볼거리, 놀거리가 풍성하다. 지역 특산품과 먹거리를 판매하는 부스에도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입장료의 절반은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줘 공정여행에 참여하는 자부심까지 챙길 수 있다.

### 시간 여행자가 되고 싶다면, 여기어때

최근 철원에 역사를 주제로 한 공원이 조성되어 인기를 얻고 있다. 일제 강점기였던 1930년대부터 1940년대 사이 철원 시가지의 모습을 복원한 곳이다. 공원에 발을 들이면 200m 정도 되는 거리에 옛 건물들이 줄지어 있어 마치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난 기분이 든다. 당시 보통학교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교실에는 나무 창틀과 책걸상, 한문으로 쓴 시간표까지 조악한 모습 그대로다. 철원우편국 내부에는 당시 주고받았던 편지와 우편물들이 전시돼 있어 그 시절 사람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다. 한국전쟁 때 사라진 극장도 당시 모습을 드러냈고 남북분단으로 끊긴 철원역도 부활했다. 철원역은 서울역과 원산을 오가던 200km 기차길의 중간 기착지였다. 지금은 모노레일이 철원역과 소이산(362m) 정상에 연결한다. 모노레일을 타고 소이산 정상에 오르면 철원평야와 북녘땅이 한눈에 들어온다. 공원 앞에 있는 북한 옛 노동당사 건물에는 총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전쟁의 참상을 보여준다. 현재 보수공사 관계로 내부는 볼 수 없다. 계절은 속절없이 변한다. 춥다가도 따뜻하고, 덥다가도 시원하다. 마음을 항상 따뜻한 봄날처럼 지킬 수만 있다면, 일상도 따뜻한 순간들로 채워지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 봄날 같은 인생의 화양연화일 것이다.



1. 고석정 꽃밭을 지키는 어린왕자 조형물.
2. 고석정 광장을 지키는 임꺽정 동상.
3. 모래톱과 기암으로 이루어진 고석정 일원.
4. 고석정을 조망하기 좋은 현대에 만들어진 누각.
5. 고석정꽃밭에서 인기 있는 강통열차.
6. 철원 근대역사공원에 복원된 여관과 철원역.
7. 철원역사공원에는 근대로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풍경이 펼쳐진다.
8. 숲길로 이어진 데크길.
9. 옛노동당사, 현재는 보수공사 중이다.



## 「 키로 파 에 디 아 」

#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

키루스는 고대 세계를 통일해 최초의 대제국을 세운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아 왔다. 그는 신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을 풀어주었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키루스 덕분에 고향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키루스를 신바빌로니아로부터 유대 민족을 구해준 영웅으로 치켜세웠다. 성경에도 '고레스' 왕으로 나오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로 칭송받았다.

글. 임성훈 [고전독서기]



“사람들은 모든 일에 키루스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했다. 그들은 키루스를 본 적 없으며, 그들 중 일부는 앞으로도 보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기꺼이 키루스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

-크세노폰, 『키로파에디아』

키루스는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그 핵심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키루스는 잘하는 분야에서는 친구들과 겨루지 않았다. 대신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골라 시합을 제안했다. 그리고 졌을 때는 크게 웃었다.” -크세노폰, 『키로파에디아』

### 미디어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키루스

『키로파에디아』에는 어린 시절 키루스가 외할아버지의 왕궁에서 지내면서 미디어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다. 하루는 미디어의 왕 아스티아게스가 외손자 키루스에게 성대한 잔치상을 차려주었다. 그리고 키루스에게 음식을 마음대로 처분하게 해주었다. '말 타는 법을 가르쳐 주느라 정

말 수고했다.’, ‘창 던지는 법을 가르쳐 주었으니 너에게도 줘야지’, ‘할아버지를 잘 보좌한 너도 받을 자격이 있어.’, ‘너는 내 어머니를 공경하니깐 너도 받아야 해.’ 어린 키루스는 이런 식으로 시종들에게 고기를 나누어주었다.

산해진미로 가득한 잔치상을 눈앞에 둔 시종들은 무엇을 원했을까? 눈앞의 고기였다. 신분이 낮아 차마 먹지는 못하지만, 평소 맛보기 힘든 기름진 음식을 먹고 싶었을 것이다. 키루스는 시종들에게 고기를 모두 나누어 주고 그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지켜본 아스티아게스를 비롯한 왕궁 사람들도 흐뭇했을 것이다. 키루스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했다. 장성한 키루스는 미디어 공격을 시작으로 정복 전쟁을 개시했다. 그전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페르시아 병사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다.

“그대들은 귀족들과 같은 무기를 받고, 승리하면 귀족들과 같은 보상을 받을 것이오.” -크세노폰, 『키로파에디아』

키루스는 병사들이 싸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좋은 무기를 제공하고, 승리했을 때 귀족들과 똑같은 보상을 약속했다. 병사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공한 것이다. 키루스는 전리품을 독차지하지 않고 함께 싸운 이들에게 충분히 나눠주었다.

### 키루스에게 배우는 진정한 리더의 자세

키루스의 군대는 페르시아인뿐만 아니라 기존에 정복한 나라에서 차출한 병사들로 구성되었다. 정복 전쟁이 한창일 때, 미디어의 왕이자 키루스의 외삼촌인 키악사레스는 미디어인의 철수를 명했다. 키루스 군의 대다수가 미디어 군이었기 때문에 그 병력이 철수하면 전쟁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때 키루스는 자신을 따를 사람들만 남고 돌아가도 좋다고 했지만, 미디어의 장군과 군사들은 모두 키루스 곁에 남았다. 페르시아군은 말할 것도 없었고, 아르메니아, 히르카니아 출신의 군사들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군사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어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 머릿속은 ‘어떻게 내가 더 많이 소유할까’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당신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크세노폰, 『키로파에디아』

아들을 죽인 잔인한 아시리아 왕을 배신하고 키루스를 도운 고브리야스라는 사람이 키루스에게 한 말이다.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보다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따른다. 경제적 안정, 명예, 소속감, 사랑, 인정, 심리적인 안정, 지식과 노하우 등... 그것이 무엇이든 형태만 다를 뿐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키루스의 아버지 캄비세스의 말을 기억하자.

“사람은 복종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믿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복종한다.” -크세노폰, 『키로파에디아』



향긋하고 맛있는 식물

# 허브 키우기

향긋한 매력을 가진 허브는 관상용으로 키우기도 하지만, 요리에 사용하면 풍미를 한껏 끌어올릴 수 있다. 샐러드, 파스타, 스테이크, 잎 차 까지 활용도 만점인 허브를 소개한다.

글. 김효정 사진. 김재이



## 집에서 키우기 쉬운 허브 식물

날씨가 따뜻해지면, 싱그럽게 새싹이 돋는 식물을 집에 들고 싶은 생각이 든다. 어떤 식물이 좋을까 고민이라면 허브가 제격이다. 봄, 여름이면 눈부신 초록의 이파리를 흔들며 햇살을 만끽하는 허브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테니까.

집에서 키우기 쉬운 허브 식물로는 바질, 애플민트, 로즈마리, 라벤더를 추천한다. 허브 종류는 대부분 지중해 지방이 원산지라 해가 잘 비치는 곳에 두어야 잘 자란다. 물주기를 할 때는 과습에 신경 써야 한다. 겉흙이 말랐다고 무턱대고 물을 주기보다는 속까지 확인하고 흙이 말랐을 때 물을 흠뻑 준다. 이와 함께 통풍이 잘되는 환경인 베란다나 창가에 뒤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 허브에 잘 생길 수 있는 병이나 해충으로는 흰가루병과 총채벌레가 있다. 분무로 물을 자주 뿌려 주고 잎을 숙아 공기의 순환이 잘되는 환경을 만들면 병충해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사람이나 반려동물에게 안전한 천연 살충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식용유와 달걀노른자를 섞어 만든 난황유를 5~7일마다 잎 앞뒤로 충분히 뿌려서 해충을 제거할 수 있다.

## 식용으로도 사랑받는 허브

바질은 향도 좋고 맛도 일품이라 이탈리아 요리에 주로 활용되는데, 바질 페스토나 바질 샐러드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상쾌한 향이 매력적인 애플민트는 잎을 따서 우려낸 물을 차로 마시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고 감기나 비염에도 좋다. 로즈마리는 여러해살이 식물로 한 번 키우기 시작하면 계절에 상관없이 초록 잎을 볼 수 있는 식물이다. 식용으로도 사랑받는 로즈마리는 주로 육류 요리에 잘 어울린다. 고기 잡내를 잡고 풍미를 더해, 요리할 때 감초와 같은 역할을 한다. 또 살균, 항균, 보습 효과가 뛰어나 화장품 원료로도 사용하고 있다.



그린팜 김민주대표 Advice

### Q. 허브 식물도 꽃이 피나요?

A. 꽃이 피는 허브 식물로는 라벤더와 로즈마리, 카모마일이 대표적입니다. 라벤더와 카모마일은 꽃을 말려 차를 만들거나 방향제로 사용하는데, 불면증이나 마음 진정에 효과가 있습니다. 로즈마리는 연보라색의 작고 예쁜 꽃을 피워 자신만의 매력을 발산합니다.

### Q. 수경재배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흙이 묻은 허브 뿌리를 씻어낸 다음, 용기에 물을 담고 뿌리를 물에 잠기게 합니다. 물은 항상 신선하게 유지해야 곰팡이나 녹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수경재배를 하면 키우기도 간편하고, 병충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Q. 허브를 식용으로 키울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A. 라벤더의 경우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식용으로 섭취할 수 있는 라벤더는 잉글리시 라벤더뿐입니다. 식용 허브를 선택할 때는 꼭 식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구매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병충해가 생기지 않게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병충해가 생기면 천연 살충제 사용을 권장합니다.



로즈마리



라벤더



애플민트



바질



#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감사

일러스트 나요



## 날마다 대처하는 감사 방법

박영순 [전남순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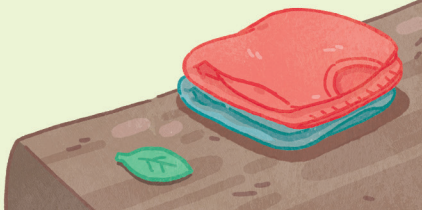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말처럼 특별한 불만이 없는 것 자체를 감사하며 살고 있다. 한 상담가의 강연에서 마음의 건강을 위해 ‘감사일기’를 써보라고 했던 내용이 기억난다. 생각해 보면 삼시 세끼 먹는 밥부터 감사의 조건인 것 같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문처럼 읊조리는 기도였지만, 그 기도가 매일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닌가. 또한 그것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건강도 감사할 일이다. 때로는 과다한 열량으로 성인병에 걸리면 어쩌나 두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운동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신체 조건도... 60대 나이에 접어들면서 직장에서 은퇴하고 전업주부가 되었다. 그동안 소홀했던 집안일을 하나하나 살피며, 특히 요리에 재미를 붙였다. 평소의 내 조리 방법에 유명 요리사가 알려주는 비법을 가미해 만들어 보기도 하고, 전혀 해보지 않은 생소한 요리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런 요리를 시식하는 사람은 만든 사람인 나와 ‘삼식(三食)’이 된 남편이다. 처음엔 내가 맛없게 느끼는 것까지도 ‘맛있다.’, ‘괜찮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던 남편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인 반응이 많아졌다. ‘간이 안 맞다.’, ‘너무 달다.’ 등. 한번은 남편이 좋아하는 순두부찌개를 했는데, 들깨즙을 넣지 않았다고 ‘이럴 거면 요리하지 말라.’는 극단적인 말을 했다. 평소에 즐겨 먹는 것이긴 하지만 들깨가 다 떨어졌기에 그것을 넣을 필요가 없는 방법으로 요리를 한 것이다. 순두부찌개를 못 먹은 것도 아니고, 양껏 먹어놓고 저렇게 막말로 불만을 표시할까.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럼, 앞으로 요리 안 해.’하며 막말로 대처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순간, 맛없다 하면서 끝까지 먹은 것은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다. “맛없는 요리지만 먹어줘서 고마워요.” 치켜 올라간 이마 주름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남편 말에 상처받은 내 마음이 스스로 치유 받는 것 같았다.

올해 93세가 된 친정엄마를 모신 지 10년이 다 돼간다. 쇠약해진 몸은 나날이 많은 기능을 잃어갔다. 다친 적도 없이 골절이 되는가 하면, 기억은 흐릿해지고 저하된 기력으로 인해 휴일의 대부분을 침대에 누워만 계신다. 엄마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지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나날이 늘어갔고 내 심신의 피로도도 쌓여갔다.

낙상 사고 이후 엄마 방에서 기척이 나면 달려가느라 새벽에도 자주 깨고 있다. 엄마의 보호자가 된 뒤로 편한 잠을 잘 수 없다 보니, 쌓이는 스트레스에 감정의 소모는 컸다. 때로는 우울감이 찾아오고 다른 날은 파도에 휩쓸린 듯 감정의 폭풍을 겪어야 했다. 가끔은 이런 생활이 억울할 때가 있다. 불행하다는 생각도 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여러 자식을 먹고 입히고 가르치느라 당신들 삶은 없다시피 했다. 가난과 굶주림에 죽지 않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맨발로 논밭을 뛰어다니며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했다. 끼니도 대충 해결했는데, 밥에 물 말아 넘기시곤 했다. 기억 속 엄마아빠는 늘 흙투성이였고 땀냄새로 가득했다. 버스도 전기도 없던 시절을 거칠게 살아낸 엄마에겐 이제 당신의 의지를 배신하는 몸만 남았고, 남의 손에 짐처럼 옮겨지는 현실에 절망하고 계신다. 엄마의 깊은 상심에 비하면 나의 우울은 투정 밖에 안될 것이다. 언젠가 초저녁, 정맥순환 문제로 부어오른 엄마의 발 마사지를 하고 있을 때 엄마가 중얼거렸다. “나 가고 나면 편하게 살아라. 니가 고생이 많다.” 겨울날 스러지는 햇살처럼 가느다란 엄마의 목소리에 멍이 막힌 듯 가슴이 메어왔다.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생로병사란 단어를 새롭게 보게 됐다. 생명은 생겨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게 되고, 없었던 것은 태어나는 식으로 순환한다. 세상의 이치이다. 생의 고프머리로 향해가는 내 엄마를 지켜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쌓여간다. 다시 봄이 오고 있다. 계절이 바뀔 때면 엄마의 이불을 빨고 옷을 개켜 옷장에 넣어두는데 그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옷을, 이 이불을 엄마가 내년에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엄마와 오늘 같이 티격태격 행복하자. 오늘을 같이 할 수 있음을 다행히 여기고, 불편함 없이 보살펴드리되 가끔 엄마께 짜증 내더라도 죄책감은 갖지 말자. 내 엄마도 필시 외할머니에게 그랬을 테니까. 엄마와 딸은 원래 그런 관계이지 않은가. 그리고 기억해야 한다. 필연적인 이별에 슬퍼하기보다 만날 수 있었던 인연에 감사해야 함.

## 엄마나나

김정순 [전북 익산시]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작은아버지가 사는 임당에서 잠시 머무를 때가 있었다. 병약한 작은 아버지는 학교 교사로 임당이라는 곳에서 교편을 잡고 계셨다. 도시락에 담아 오신 노란 옥수수빵, 다락에 숨겨 놓 들깨 넣은 꿀 한 손가락을 맛볼 때는 할머니의 잔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시름거리며 흥역을 앞던 나를 극진히 돌봐 줬던 할머니. 그 초가집에선 사촌 동생도 태어났다. 자리 잡을 동안만 있기로 하고 부모님은 서울로 떠났다. 난 언니들과 사과밭에 떨어진 사과도 줍고, 손가락만 한 냉이도 캐다. 토끼에게 줄 풀도 뜯어 오고, 달랑거리는 주전자를 들고 인근 흰 염소 있는 집으로 젖을 짜 오는 일도 했다. 초가집 돌담에 툭툭 떨어지는 감꽃은 목걸이가 되었고, 들길을 걸으면 연꽃이 피어올랐다. 얼른 연근을 캐서 질근질근 씹어 먹을 수 있는 여름이 빨리 오길 바라며 걷기도 했다.

한번은 큰 홍수가 났다. 여섯 살이었던 나는 다리 위에서 떠내려가는 수박, 참외, 돼지를 보면서 집에서 걱정할 어른들도 뒤로 한 채 신기하게 쳐다만 봤다. 연보를 들고 예배당에도 다녔다. 언니 손을 잡고 시고 달콤한 자두나무가 있는 산 위에 있는 예배당을 갈 때면 소복을 입고 무덤 앞에 있던 여인도 봤다. 어스름한 아침, 나를 깨우는 큰 언니 손을 잡고 서울로 가기 위해 보따리를 들고 나올 때도 있었다. 이후 서울에 살면서도 여름방학 때가 되면 경산에 내려가 시장에서 한 송이에 200원밖에 하지 않았던 포도를 사 먹었다. 작은아버지 따라 학교 숙직실에서 야구방망이를 곁에 두고 잠자던 일, 말라가는 냇가에서 손으로 물고기를 잡던 일, 뚝은 감을 소금물에 담그고 매일 향아리 뚜껑을 열어본 일.

사는 동안 임당은 잊혔다. 사람들은 고향이라 하는 곳이 나에겐 그 경산에 있는 임당이 전부인 것을. 오래된 것들은 아름다운 법, 나이 들어 거친 세월을 사는 동안 먼 고향으로 자리 잡아 추억이 되었다. 예순이 넘는 나이가 되어보니 할머니와 작은아버지는 볼 수 없지만, 내 마음속에 한 줄기 빛으로 자리 잡은 임당은 연근 같은 추억이 아삭하게 씹히는 고마운 곳이다.

보일러가 고장 났다. 서비스센터 직원이 요리조리 살펴보더니 보일러에 물이 새고 있다고 한다. 보일러를 고치는 비용과 새로 구입 비용을 물었더니, 보일러 수명은 보통 7~8년이라고 한다. 10년 가까이 된 우리집 보일러는 보통의 보일러 수명을 넘기고 장수를 했으니, 참 기특하다. 수명을 다한 보일러를 교체하기로 했다. 보일러가 새롭게 설치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샤워가 문제였다. 아직은, 찬물로 샤워를 할 수 없는 날씨다. 대중사우나를 이용하기도 여의치 않았다. 집에서 아이들을 씻기기 위하여, 가스 불과 전기포트에 끓여가며 끓은 물을 조심조심 욕실로 퍼 날랐다.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아이의 머리를 감기고, 머리 감은 물로 아이 몸을 씻겼다. 아이가 머리 감은 물을 재사용해서 애벌 씻기를 해주니, 세상에 머리감은 물로 씻기는 사람도 있나 싶어 의아해한다. “엄마 어릴 적에는 연탄불에 물 끓여서, 대야에 물 받아놓고,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 할머니가 바가지로 물 아끼며 씻겨 주셨어. 연탄불에 물을 끓이는 건 시간을 많이 필요로 했고, 지금처럼 샤워 손잡이만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오던 시절도 아니었고.” 둘째가 말한다. “물이 참 고마웠네요. 따뜻한 물이 안 나오는 게 이렇게 불편한지 몰랐어요.”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수도를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삶을 살아왔다. 물을 틀면 언제나 따뜻한 물이 나오는 삶을 살아온 지 그리 길지 않은 내 삶도, 오늘은 참 불편하고, 추운데...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불편하다 편해지면 잠시 감사하고 감동하지만, 그 고마움의 여운은 길지 않으면서, 또 다른 편리를 찾아나서는 게 보통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다. 편리가 익숙해지면, 처음 느꼈던 고마움은 사라지고, 불평하는 마음이 뼈죽 솟아오른다. 비록 무생물이지만, 우리에게 따스함을 책임지고 있었던, 장수한 보일러를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주고, 새 보일러를 맞이했다. 따뜻한 물이 내뿜는 수증기가 욕실에 가득하다.



다음호 <일상의 향기> 주제는 '청춘'입니다.

\*'청춘(靑春)'은 인생에 있어 가장 좋은 시절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든 해 낼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청춘이지요. 사전적 의미로 청춘은 젊은 시절을 뜻하지만, 청춘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청춘은 언제였나요? '청춘'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분량 : 200자 원고지 4~5매 (원고 접수 시 주소와 연락처 기재 必) 마감 : 5월 31일 문의전화 : 02-511-7053 이메일 : essayds@naver.com  
우편 : (우) 06530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47길 68, 402호 <사람과 사람, 함께하는 삶의 향기> 담당자 앞

\*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접수하신 원고는 반환되지 않으며 중복, 표절로 밝혀질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Recipe\_01

가지에 표고버섯과 새우를 넣어 만든 가지 멘보샤



재료 | INGREDIENTS

가지 2개, 생새우살 200g, 표고버섯 1개, 대파 1/2대, 소금 약간, 후춧가루 약간, 전분 4큰술, 스위트 칠리 소스 3큰술, 튀김용 식용유 넉넉하게

만드는 법 | DIRECTIONS

1. 가지는 두께 1cm로 썬다.
2. 생새우살, 표고버섯, 대파는 작게 다져 소금과 후춧가루를 넣고 고루 섞어 새우 반죽을 만든다.
3. 가지→새우 반죽→가지 순으로 쌓아 올리고 겉면에 전분을 묻힌다.
4. 170도로 예열한 기름에 멘보샤를 넣고 약 5분간 튀긴다.
5. 튀겨진 멘보샤에 스위트 칠리 소스를 곁들여 먹는다.



Recipe\_02

카누 디카페인 커피를 넣은 아이스 유자차



재료 | INGREDIENTS\_한잔기준

카누 릴렉스 디카페인 캡슐 1개, 유자청 4큰술, 물 120ml, 얼음 1/2컵

만드는 법 | DIRECTIONS

1. 컵에 유자청과 물을 넣고 고루 섞는다.
2. ①에 얼음을 넣고 카누 릴렉스 디카페인 샷을 넣는다.

\*유자청 만드는 법\*

- ① 유자를 잘 세척한 다음, 반으로 잘라 씨를 제거해 준다.
- ② 유자를 얇게 채 썰어 준비한다.
- ③ 용기에 담고, 유자와 설탕을 1:1 비율로 넣어 준다.
- ④ 윗부분을 설탕으로 덮어서 공기와 접촉을 막아 뚜껑을 덮어 냉장고에 넣어준다.



Dongsuh News  
01

###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 맥심 인스턴트 커피 병 제품에 점자 표기 도입

동서식품은 맥심 인스턴트 커피 병 제품에 시각장애인 소비자를 위한 점자 표기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점자 표기가 적용되는 제품은 ▲맥심 오리자날 ▲맥심 모카골드 ▲맥심 디카페인 ▲맥심 아라비카 등 맥심 인스턴트 커피 4종이며 제품 패키지 상단에 '맥심 커피'가 점자 문구로 표기된다. 국내 인스턴트 커피 중 패키지에 점자 표기를 적용한 것은 맥심이 최초다.

이외에도 동서식품은 커피 병에 붙은 라벨을 기존 대비 제거하기 쉬운 라벨(Removable label)로 교체해 친환경성과 소비자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새로운 라벨은 제거 시 접착제가 남지 않고 한 번에 부드럽게 떼어져 공병을 손쉽게 재활용하거나 분리 배출할 수 있다.

점자 표기와 새로운 라벨을 적용한 제품은 3월 말부터 제품 재고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출고될 예정이다.

한편 동서식품은 지난 2021년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위해 맥심 대용량 제품 손잡이를 플라스틱에서 종이로 교체했다. 또한 카누, 커피믹스 등 주요 제품에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다.

동서식품은 "이번 점자 표기를 포함한 패키지 개선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제품의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동서식품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친환경 소재 도입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suh News  
02

###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실천 식목일 맞이 나무심기 봉사활동 진행

동서식품은 지난 4월 4일 서울 서초구 양재천 일대에서 임직원이 참가하는 식목일 맞이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식목일을 앞두고 환경보호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획됐다. 이날 동서식품 임직원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숲과 수목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 양재천 일대에 탄소를 흡수하는 기능이 뛰어난 셀릭스 삼색버드나무를 식재했다. 동서식품 김태이 봉사활동 담당자는 "식목일을 맞이해 지역사회환경을 개선하고 환경보호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이번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의미 있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서식품은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봉사활동 외에도, 임직원들이 손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부 플랫폼을 운영하고 해당 금액만큼을 함께 기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임직원들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Dongsuh News  
03

### 제25회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신진서 9단 2년 연속 우승

동서식품이 후원하는 '제25회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에서 신진서 9단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신진서 9단은 4월 15일 오후 2시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결승 2국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김명훈 9단을 꺾고 최종 승리를 거두었다. 이로써 신진서 9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승이라는 쾌거를 거뒀으며, 2019년과 2023년, 올해까지 총 세 차례의 맥심커피배 우승 기록을 갖게 됐다.

우승자 신진서 9단에게는 우승 트로피와 함께 상금 5천만 원이, 준우승자 김명훈 9단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2천만 원이 수여되었다.

신진서 9단은 "입신 중의 입신을 가리는 맥심커피배에서 대회 2연패와 함께 세번째 우승을 차지해 굉장히 뿌듯하며, 앞으로도 이 기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동서식품이 후원하고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는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은 바둑 프로그래서 9단들만 참여할 수 있는 국

내 기전으로 바둑 문화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동서식품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다.

동서식품 최상인 홍보상무는 "우승자 신진서 9단과 김명훈 9단을 포함해 대회 기간 내내 열정적인 대국을 보여준 모든 선수들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동서식품은 바둑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을 도우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vent Review  
01

2024년 4월 독자이벤트 후기  
향기로운 사람들과 함께한 커피 클래스

커피 향기가 가득했던 봄날, 맥심플랜트에서 '2024 독자 초청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동서식품 브랜드 체험사업팀에서 준비한 커피 클래스에 이벤트 참여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커피아카데미 강연과 스페셜티 소개 및 시음 시간에는 다양한 커피 원두와 로스팅에 따른 커피 맛의 변화에 대해서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한 잔의 커피는 풍요로운 삶을 선물합니다. 앞으로도 독자 이벤트를 통해 독자 여러분을 만나 뵙고 삶의 향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마음속 커피나무는  
잘 자라고 있나요?

-길정남(서울 강서구)

햇살은 달고 바람은 다정합니다. 겨우내 숨바꼭질 놀이에 빠져 있던 새싹들이 따스해진 기운에 서둘러 등장합니다. 한꺼번에 나온 것이 쑥스러웠는지 저마다 슬래라며 까르르 어깨를 들썩, 쑥쑥 기지개를 켜다 환하게 꽃망울을 터트립니다. 우리들의 봄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동서식품에서 주최하는 '2024 맥심플랜트 독자 초청 이벤트'에 당첨되어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맥심플랜트는 정원 속 카페인 지 카페 속 숲인지 모를 만큼 초록 식물로 가득했습니다. 행사는 지하 2층에서 열렸습니다. 커다란 통유리를 통해 보이는 거대한 로스팅 기계는 마치 '원두는 내게 맡겨라! 맛있게 만들어 줄 테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렇게 원두를 볶다가 지구에 무슨 일이 생기면 로봇으로도 변신하지 않을까? 하는 엉뚱한 상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우주에서 온 적들도 커피향 술술 풍기는 로봇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의 상상이 공상이 되려는 순간 강연은 시작되었습니다. 동서식품의 커피 전문가는 세계 주요 커피 생산국에 대한 것부터 원산지, 가공, 로스팅, 분쇄, 추출 등 커피가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을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중간중간 시음도 해볼 수 있었고, 마지막에는 스페셜 커피를 마셔볼 기회도 있었습니다. 처음 마셔본 스페셜 온두라스산 커피. 평소 머슴 입맛에 커피는 따뜻한 거, 차가운 거, 달달한 거, 이게 전부였기에 신선한 경험이었고 새로운 취향 발견에 '임지척'을 할 뻔했습니다.

몰입도 있었고 무척 유익했고 재미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이름표를 내고 나오는 길에 직원분께서 한 아름 선물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덜 복잡한 일상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는 일 없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속 커피나무는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고 생각 많음, 그 중간 어느 한 편에 심어진 커피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빨간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아, 그 나무는 원산지는 국산이지만 품종은 아라비카였군요. 청명하고 풋풋하고 그윽한 지금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후기는 이벤트에 참가하신 독자분께서 보내주신 후기 중 선정된 내용입니다.



[사람과 사람, 함께하는 삶의 향기] 5·6월호를 읽고 떠오르는 순간이나 기억에 남는 도서를 그 이유와 함께 보내주세요.

\* 보내실 곳: (이메일) essayds@naver.com \* 접수 마감: 2024년 5월 31일(금) (이름, 연락처, 주소 기재)

Pretty Postcard  
02

아날로그의 감성 그 진심을 담다  
독자여러분의 정성으로 가득찬 예쁜엽서를 소개합니다



\* 예쁜 엽서 당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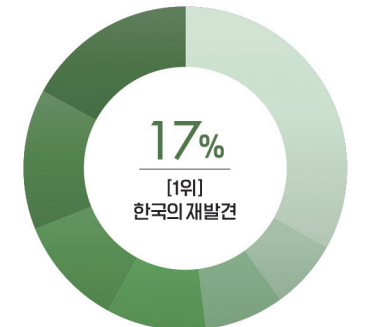
- 권윤진\_ 강원 속초시
- 김수희\_ 대전 유성구
- 김자경\_ 경기 평택시
- 나현진\_ 서울 양천구
- 전지숙\_ 전북 전주시

Preference Column  
03

선호도 칼럼 조사  
3·4월호 독자 여러분의 선택

독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은 총 416건(4월 3일 기준)으로 가장 좋았던 칼럼으로 '한국의 재발견'과 '길 위의 시간', '올댓커피', '도시를 걷다', '우리집 식물원', '차 한 잔의 향기'를 선택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위] 한국의 재발견	17%	[4위] 도시를 걷다	10%
[2위] 길 위의 시간	14%	[5위] 우리집 식물원	8%
[3위] 올댓커피	11%	[6위] 차 한 잔의 향기	7%
		기타	33%





독자의견



**한국의 재발견**  
아이와 함께 우리나라 절기 한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배우는 기회가 되었네요.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 문화를 알게 되는 건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해요. 안미라\_인천 부평구



**길 위의 시간**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의 멋진 도시 경관과 소개 글을 보니 실제 여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박민선\_경기 용인시



**올댓 커피**  
유네스코에 등재될 정도의 커피 문화를 가진 튀르키예에 세계의 커피 기업들이 얹다뒹 투자한다는 소식도, 커피가 이슬람권 문화에서 퍼져 나왔다는 소식도 유익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김규리\_전남 목포시



**도시를 걷다**  
군포에 그런 멋진 꽃동산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꼭 가볼 생각입니다. 우리 주변의 가볼만한 장소를 소개해주어 참 좋습니다. 최석환\_경기 고양시



**우리집 식물원**  
봄을 맞아 식집사에도전하고 있어서 관심있게 읽었어요. 수선화 수경재배에 도전해보려구요. 이가형\_부산 해운대구



**차한잔의 향기**  
지금도 사용량이 많이 줄었지만 학창시절 향수를 일으키는 연필무지업을 보며 사소한 것에서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허혜림\_경기 파주시

독자퀴즈

2차 대전 직후 어려운 시절, 돈이 있는 고객이 두 잔의 커피값을 지불하고 나가면, 가난한 누군가가 커피값을 지불하지 않고 한잔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배려의 문화가 있는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 ★ 21쪽을 참고해 독자엽서로 응모하세요. 마감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 전화번호를 적지 않으면 배송 문제로 당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엽서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표기하지 않으면 당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난호 정답

내나무

- 3·4월호 정답자는 367명입니다. -

독자엽서 당첨자

\* 독자상품은 5월 중 배송됩니다

강성갑 전남 나주시	김민하 광주 광산구	문화기 서울 중랑구	오은라 경기 안양시	전복일 경기 포천시
고승남 전남 목포시	김영훈 서울 성북구	박경운 강원 황성군	옥미라 강원 삼척시	전송미 충북 청주시
고은경 서울 송파구	김예슬 경기 이천시	박경환 경기 부천시	원순진 강원 황성군	정선희 서울 송파구
고이석 경기 용인시	김인주 경북 고령군	박선화 경기 용인시	원현정 경남 거제시	정주식 대구 수성구
구영자 경남 거제시	김종열 인천 미추홀구	반지수 경기 성남시	이나경 경기 하남시	정철호 대전 중구
구정현 경남 양산시	김주영 서울 동대문구	배미화 부산 사하구	이성환 부산 부산진구	주영완 서울 은평구
권혁명 경기 파주시	김춘자 전남 여수시	서은실 경기 파주시	이연옥 서울 영등포구	최윤소 광주 동구
김경미 서울 도봉구	김혜린 경기 시흥시	신명정 인천 강화군	이예진 광주 서구	최정자 서울 동작구
김미경 인천 동구	나용호 인천 부평구	신우식 경기 안양시	이종민 서울 서초구	현상학 서울 서대문구
김미소 서울 송파구	남명숙 서울 양천구	오귀옥 전북 군산시	장명화 경남 양산시	황주현 경기 안산시

세 상 엔 재 미 있 는 게 많 지 만  
잠 시 CUT and Mochagold

\*\*\*

진한 집중 한잔  
맥심 모카골드





# 삶의 향기가 문학이 됩니다.

‘삶의향기 동서문학상’과 함께  
당신 안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세요



## 제17회 **삶의향기** 동서문학상 | 공모

- 응모자격: 대한민국 여성 누구나(재외 한국여성 포함) / 등단 작가는 해당 부문 응모 불가
- 응모기간: 2024년 5월 27일 ~ 10월 1일
- 응모부문: ① 시 부문 - 분량 제한 없음 / 3편 이상
  - ② 소설 부문 - A4 9장 내외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 1편 이상
  - ③ 수필 부문 - A4 3장 내외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 2편 이상
  - ④ 아동문학 부문 - 동화: A4 5장 내외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 2편 이상  
동시: 분량 제한 없음 / 3편 이상
- ※ 글꼴 크기 11pt, 줄간격 160% 기준 / 판수 미달 및 기준 분량 크게 미달 - 초과하는 작품 심사 제외
- 주제: 자유 주제 (제한 없음)
- 응모요령: ① 원고지 또는 A4용지에 수기 또는 워드로 작성. 온라인은 한글/MS워드 파일만 접수 가능
  - ② 부문별 중복 응모 가능 (예 - 시 부문 응모자 (소설),(수필),(아동문학)에 응모 가능)
  - ③ 우편 응모 시 문학상 홈페이지에서 표지 양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
    - 1) 응모 부문 2) 작품명 3) 분명 4) 생년월일 5) 주소 6) 연락처 7) 약관동의 필수 기재
  - ※ 미 기재 항목 있을 시 / 필명, 가명만 쓸 시 본인 확인 불가하므로 심사 제외
- 원고에는 제목 외 개인정보 기재하지 말 것
- ④ 응모작은 온·오프라인 어디에도 발표되지 않은 본인 순수 창작품이어야 함
- 작품접수: ① 인터넷 접수 - <http://bookclub.dongsuh.co.kr> / 삶의향기 동서문학상 홈페이지
  - ② 우편 접수 - 03434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3길 47, 3층 / 삶의향기 동서문학상 운영위원회 담당자
- ※ 인터넷접수는 마감일 자정(00:00)까지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 분까지 유효

- 시상내역: 총 상금 7,900만원 / 대상 1,000만원
  - ① 대상: 종합 1명 (대상 수상 부문에는 금상이 없음)
  - ② 금상: 4개 부문 각 1명 (총 3명)    ③ 은상: 4개 부문 각 2명 (총 8명)
  - ④ 동상: 4개 부문 각 3명 (총 12명)    ⑤ 가작: 4개 부문 각 5명 (총 20명)
  - ⑥ 입선: 4개 부문 각 10명 (총 40명)    ⑦ 맥심상: 4개 부문 각 100명 (총 400명)
- 특 전: 대상 및 금상 수상작은 등단 및 한국문인협회 입회자격 부여
- 수상작 발표: 2024년 10월 22일 문학상 홈페이지 / 월간문학 12월호에 등단작 게재
- 유의사항: ① 응모작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수상작은 1개월간 보관 후 파기, 그 외 응모작은 문학상 종료 후 즉시 파기함)
- ② 응모된 작품에 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단 수상작의 사용범위가 '월간문학' 및 동서식품(주)가 발간하는 '수상집' 게재일 경우는 제외함)
- ③ 기존 발표작(온라인/출판)터 문학상입상작, 표지, 위작, 모작, 대필작으로 판명될 경우 수상이 취소됩니다.
- 주 최: 동서식품(주)
- 주 관: 삶의향기 동서문학상 운영위원회, (사)한국문인협회
- 문 의: 삶의향기 동서문학상 운영사무국 02)336-1710 [dongsuhmunhak@naver.com](mailto:dongsuhmunhak@naver.com)
- Event 1. 멘토링 클래스! 유튜브 문학 창작 강의 [총 4주 | 6월 3일~28일]
- Event 2. 멘토링 게시판! 문학상 홈페이지 내 11 문학 지도 [총 4주 | 7월 1일~27일]
- Event 3. 하루 동서한정! SNS 100자 글쓰기 챌린지 [총 4주 | 8월 12일~9월 8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람과 사람, 함께하는 삶의향기〉는 동서식품에서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발행하고 있는 사외보입니다. 정기 구독을 원하시는 고객님을 위해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수집, 이용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동의 내용에 대하여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불가피하게 사외보 발송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 원하시는 경로로 〈사람과 사람, 함께하는 삶의향기〉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 구독 신청 안내

당사의 사외보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께 무료로 배부합니다. 구독을 원하는 분께서는 ①홈페이지 본인 인증 또는 ②독자엽서를 통해 구독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홈페이지 www.dongsuh.co.kr → 홍보센터 → 웹진 삶의 향기 → 신규 구독 신청의 순으로 신청하시면 신청한 다음 호부터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 독자 엽서를 통해 구독 신청 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사외보 제작·발송 및 경품 발송
2. 수집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구독종지 요청 시까지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외보 발송 및 당첨자 경품 발송이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 각 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 당사는 사외보 제작·발송 및 경품 발송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위탁을 받는 자(수탁자) : 케이아트만㈜, (주)인스팟, 월드피에이디
2. 위탁 업무 내용 : 사외보 제작·발송 및 경품 발송
3. 동서식품(주)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홈페이지 및 엽서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문의사항】 사외보(사람과 사람, 함께하는 삶의향기) 편집실

Tel : 02-511-7053 / E-mail : sarmhyang@naver.com (수탁자 케이아트만㈜에서 진행합니다.)

·이 름 : \_\_\_\_\_ ·전화번호 : \_\_\_\_\_  
·주 소 : \_\_\_\_\_

신규  변경  중지  기존

독 / 자 / 의 / 견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칼럼과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이번 호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퀴/즈/정/답

· 정 답 :

· 연 락 처 :

정답자 상품 배송을 위해 연락처를 함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Five empty rectangular boxes for the sender's name and address.

우편요금  
수취인 부담 부담

발송유료기간  
2023.05.01 ~ 2025.04.30

서울시서울우체국  
제 41389호

받는 사람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47길 68, 4층 402호  
시람과 사람, 함께하는 삶의 향기 담당자 앞

Five empty rectangular boxes for the recipient's address, containing the numbers 0, 6, 5, 3, 0.

시람과 사람, 함께하는



2024 \* No.46  
May + June

항문현 인터랙티브 동서석목 홈페이지  
www.dongsim.co.kr

시람과 사람, 함께하는 삶의 향기는  
매호를 향기워 사토문 이됩니다

©정장원 > 해바라기가 있는 봄 들꽃들

